매일 INDEX

9면
'3도3군의 매력' 베트남에 알리다

# 전주매일

2023년 8월 8일 화요일 (음 6월 22일) 제332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철거되는 새만금 잼버리 홍보 부스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의 조기 철수가 결정된 7일 부안군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델타존에서 세계 각국 대표단이 홍보 부스를 철거하고 있다.

## 새만금 잼버리, 수도권서 마침표

### 참가자들 태풍 '카눈' 북상 따라 오늘 야영장 떠나… 수도권에서 프로그램 진행

### 도내 활동 볼 수 없을 듯… 일각선 '정부, 부실운영 전북에 책임 부여' 행태 지적도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들이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에 따라 8일 오전 10시부터 새만금 야영장을 떠난다. 숙소는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있지 않은 수도권에 마련된다.

오는 11일 열릴 예정인 K-팝 콘서트 장소도 전북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상암월드컵경기장 등으로 변경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어, 폐영식까지 수도권에서 진행돼 전북에서 열린 새만금 잼버리는 '수도권 잼버리' 로 마침표를 찍게 됐다.

참가국 모두가 전북을 빠져나가게 됨에 따라, 향후 잼버리 프로그램에서 전북도내에서의 활동은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7일 전북 부안군 잼버리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어 "태풍이 내습할 경우 전라북도가 영향권에 들게 돼 잼버리 영지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비상 대피 계획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세계스카우트연맹단과 각국 대표단의 우려와 요청도 반영됐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오는 8일 오전 10시부터 156개국의 참가자 3만6,000여 명이 태풍의 영향권에 직접 들어있지 않은 수도권 등으로 이동한다.

버스 1,000대 이상이 동원되며 원활한 이송과 의사소통, 질서 유지를 위해 통역 요원이 배치된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와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의 협조도 이뤄질 계획이다.

김 본부장은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한 6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는데 진행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숙소는 행정기관 및 민간 교육시설 등을 최대한 확보해 대원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숙소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 본부장은 "총량으로 보면 많은 수(숙소)를 확보하고 있는데 저희(정부)가 리스트를 세계연맹에 보내 선택권도 주는 상황"이라며 "비용은 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책임을 갖고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11일 열리는 K팝 콘서트의 장소도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초 콘서트 날짜와 장소는 6일 새만금 야영지에서 11일 전주월드컵경기장으로 한 차례 변경된 바 있다.

이날 오후 6시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전국 시·도지사 회의를 열고 이번 비상 대피 계획에 대한 각 시·도지사의 협조를 요청했다.

대원들의 철수에 따라 잼버리 현장은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다. 텐트 등 설치된 구조물 등은 매뉴얼에 따라 재정비한다. 조직위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존 일정을 진행하고 지자체와 연계한 프로그램도 개발해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직위는 철수 및 분산 숙박에 따른 안전 관리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비상 대피 이후에도 영외 프로그램 중심으로 잼버리 대회가 진행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수도권 비상대책이 부실운영 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자 정부가 전북 전체에 책임을 부여한 행태라고도 지적한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시군프로그램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 모두 취소하고 앞으로 전북에서 사실상 관광프로그램등 운영은 없다고 못을 박은 것과 다름 없다"면서 "태풍을 핑계로 새만금에서 각종 논란을 전북의 모든 시군이 함께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과 같은 대책"이라고 비꼬았다.

한편, 전북도는 새만금 잼버리 영지에 전북도와 도내 기관·단체들이 환경정비에 대거 참여함에 따라 야영환경이 크게 개선됐다고 7일 밝혔으나, 참가국 전원이 8일 야영장을 떠나게 됨에 따라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김재훈 기자

## '킬러문항 배제 논란' 등 외부에 흔들리지 말아야

### 수능 D-100… 도교육청, 학습전략 안내

### 지속적인 복습 · 개인 건강 관리 철저 강조

### 도교육청 진학 상담 프로그램서 추가 상담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수능 100일을 앞두고 킬러문항 배제 논란 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고3 수험생들이 집중해야 할 것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꾸준한 공부라고 했다. 고난도 문항 출제와 수능 변별력은 별개며, 이번 교육부 발표가 수능 난이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만약 쉬운 수능이 되더라도 특정 집단의 유불리를 논하기 어려우며, 중상위권 학생이나 재학생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 따라서 수험생들은 지금까지 공부한 대로 끝까지 자신의 공부 리듬을 잃지 않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는 지속적인 복습을 꼽았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내용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공부해 온 내용을 복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수험생들은 불안한 마음에 많은 문제를 풀고 새로운 유형을 접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은 자신의 수준을 고려해 자신 있는 부분을 강화하고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개인 건강 관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올해는 어떤 방역 상황에서 수능시험을 치르게 될지 알 수 없다. 다만 고위험군 시설은 가급적 이용하지 않으며, 개인 위생에 신경씀으로써 자칫 건강상의 이유로 불리한 상황에서 시험을 보게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신중한 수시 지원 전략 마련을 강조했다. 수능 난이도가 화제가 되면서 정시 수능 전형을 노리는 수험생이 많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자연스럽게 본인의 내신 성적보다 더 합격선이 높은 대학에 지원하는 수시 상향 지원 현상이 지난해보다 더욱 강화될 수 있다. 따라서 9월 모의평가 등을 통해 본인의 예상 수능 성적과 현재 내신 성적을 분석해 수시와 정시 중 어떤 전형이 더 유리한지를 판단한 후 수시 적정 지원 대학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추가 상담이 필요하다면 도교육청의 진학 상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도교육청에서는 매주 권역별로 진학상담을 하고 있다.

9월 1일부터 8일까지는 도교육청 대입지원실에서 수시집중상담도 받을 수 있으며, 6개 교육지원청에서도 9월 2일 수시 집중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진학 상담 신청 방법은 전북 진로진학홈페이지 (https://www.jbe.go.kr/jinro)에서 확인 가능하다.

도교육청 진로진학담당 강세웅 장학사는 "올해 수능을 잘 치르기 위해서는 수능 난이도에 집착하지 말고 본인만의 올바른 학습 습관을 끝까지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며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 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 지역에서 권역별 수시 지원 설명회가 열리는 만큼 이를 활용하면 수시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세요.